

중국의 모든 기업은 둘로 나뉜다

이 별 찬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

**“지금 중국에서 기업은 두 종류뿐입니다.
국가가 키우는 기업, 그리고 키워주길
바라는 기업.”**

만년 적자인 중국의 AI 칩 설계 기업 한우지(寒武纪, 캄브리콘)가 대형 우량주 지수에 편입된 지난달 13일, 베이징에서 만난 40대 국영기업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날 한우지가 이름을 올린 SSE50(상하이 50) 지수는 상하이거래소 상장기업 1393개 중 시가 총액과 유동성 기준 상위 50개 우량주로 구성된 '명예의 전당'이다. 그는 “한우지는 국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주는 기업”이라며 “기술력과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자금이 몰리는 자리에 무작정 올려놓았다(送上)”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우지는 중국과학원에서 출발한 기업으로, 한때 화웨이 등 IT 공룡들에 고성능 AI 칩을 공급하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2022년 3월 이후 주목할 만한 신제품을 내놓지 못했고, 설립 이후 7년간 누적 손실이 1조 원에 육박한다. 최근 한우지가 중국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것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인 천톈스(陳天石) 회장이 중국 부자 순위 140위(후룬바이푸 기준)에 오른 덕분이었다. 천 회장은 한우지의 시가 총액 상승에 힘입어 현재 660억 위안(약 13조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한우지를 치마 폭에



미국이 반도체, AI, 전기차 등 기술 산업
전반으로 제재 범위를 넓히면서 중국은
이들 분야의 자국 기업들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상하이 출장 길에 동행했던 중국인
사업가는 “중국 첨단기술 산업의 가치사슬에 안착한
기업들은 망하려 해도 망할 수 없는 구조” 라고 설명했다.

감싸는 건 미국에 대항할 충알을 비축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반도체, AI, 전기차 등 기술 산업 전반으로 제재 범위를 넓히면서 중국은 이들 분야의 자국 기업들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상하이 출장 길에 동행했던 중국인 사업가는 “중국 첨단기술 산업의 가치사슬에 안착한 기업들은 망하려 해도 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단지 조성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데, 미국의 대중국 제재 리스트나 문건을 종종 분석한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줄 차기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를 예측하기 위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예고된 ‘2차 미중 무역·기술 전쟁’을 앞두고 중국이 수증의 자원을 긁어 모으고 있다.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술 돌파’를 이뤄내겠다는 결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에서는 매일 같이 중국의 ‘두려움’과 ‘전 의(戰意)’가 동시에 느껴진다.

‘살아남으면 더 강해진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서는 중국 지도부의 ‘슬로건’은 이미 공개됐다. 202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는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애국 영상을 게시하면서 ‘당신을 죽이지 못한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란 제목을 달았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1888년 작(作) ‘우상(idols)의 황혼’에 남긴 문구를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선전 문구로 삼은 것이다. 미국의 압박을 견뎌 내고 국력을 키워나 가면 ‘그릇된 우상’을 몰아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읽힌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자국을 겨냥한 서구의 기술 탄압을 극복한 사례들도 소개됐다. 중국의 원자폭탄 제조, 위성 발사, 슈퍼컴퓨터 개발, 유인우주선 탐사 등이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마오쩌둥이 세운 중국이 외부 압박을

뚫고 ‘기술 돌파’를 해낸 경험이 많다는 것이다. 1959년 6월, 소련이 중국의 원자폭탄 제조를 돕겠다는 약속을 파기하자 중국 정부는 곧장 자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596’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단 5년 만에 ‘추샤오제(邱小姐, 중국의 첫 원자폭탄의 암호명으로 둥근 외형을 가진 공 아가씨란 뜻) 투하 실험에 성공했다. 당시 중국이 암묵적으로 정한 데드라인은 1967년 1월이었는데, 미국과 소련이 중국의 핵 프로젝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핵실험 일정을 2년이나 앞당겼다.

중국 과학기술의 토대를 쌓은 ‘로켓의 아버지’ 첸쉐쎈(錢學森)은 1992년 8월 저우자화 부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국의 낙후한 자동차 산업을 일으킬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중국 자동차 산업은 휘발유와 디젤유 차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환경 오염이 덜한 신에너지차 단계로 가야 한다”면서 “중국은 한 단계를 건너뛸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2001년 이후 국가 첨단기술 발전 계획(‘863’ 계획)에 신에너지차를 포함시키고 전기차 산업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1위(2023년 491만 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트럼프 귀환을 앞두고 중국은 또다시 ‘생존’을 위한 정면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첨단기술 영역에서 미국의 제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중국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2024년 12월 2일, 중국을 직접 겨냥한 미국의 AI 칩 수출 통제 등 제재가 발표된 직후, 중국은 단 하루 만에 대(對)미국 광물 수출 제한, 미국 반도체 구매 제한령(令)을 내렸다. 자국의 AI 산업 발전을 위해 ‘슈퍼을(乙)’로 대접해줬던 미국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 며칠이 지나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숨방망이 복수’를 하는 데 그쳤던 중국이 눈이 뒤집힌 것처럼 반격했다. 중국의 관변 평론가인 후시진(胡錫進) 전(前) 환구시보 편집장은 “중국의 반도체 등 기술 산업이 8년 전보다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강력한 성명을 즉각 발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02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는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애국 영상을 게시하면서
‘당신을 죽이지 못한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란 제목을 달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맞아 전면에 내세운 구호인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에서도 전의가 느껴진다. 단기간의 경제성장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신(新)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2년 동안 발표된 중국 당정 지도부의 각종 회의 발표문에서는 ‘기술 돌파’와 ‘국가 안보’가 한결같이 최우선 과제로 거론됐다. 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는 시스템인 ‘신형거국체제(新型舉國體制)’와 중국군(軍)과 민간 기업(民)의 기술 교류를 강화하는 ‘군민융합’ 기조는 확고하게 자리잡는 중이다.

기업들도 이런 지도부의 기조 변화를 감지한지 오래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식 대외 활동이 가능해진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은 연례 기업 행사 때마다 ‘AI’와 ‘반도체’, ‘출해(出海, 해외시장 개척)’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중국이 주력하는 첨단 산업을 앞장서서 챙기고, 미국 제재로 인한 기업의 손해는 해외시장을 개척해 메꾸자는 의미다. 중국의 정치, 경제를 주무르는 이들은 벌써 미국과 일전을 치르기 위한 ‘전시 태세’로 전환한 것처럼 보인다.

도광양晦(韜光養晦), 그리고 괄목상대(刮目相對)

이 나라가 전의를 불태우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도광양晦(韜光養晦,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를 미덕으로 삼아온 중국은 비축해 둔 힘을 불시에 드러내는 ‘서프라이즈’를 즐겨 구사한다. 미국이 중국을 무너트리하고자 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은 칼을 갈아왔다. 아직 체급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실에서는 이미 중국의 기술 수준이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작년 8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세계 핵심기술 64개의 연구 경쟁력 평가에서 중국은 57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단 7개의 분야에서만 선두를 차지했다. 세계 우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영향력을 점수화한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에서도 지난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자체 조사를 통해 “중국이 미국 제재 속에서도 2015년에 도입한 산업 진흥책인 ‘중국제조 2025’의 목표를 86% 이상 달성했다”고 결론 내렸다.

첨단기술 시장에서 중국의 약진은 특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40년에는 지구에서 전기차만 살아남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의 신에너지차(전기차 포함) 판매량은 1000만 대를 최초 돌파하며 2위를 까마득하게 따돌렸다. '삼성의 발명품'으로 불리던 폴더블 스마트폰의 중국 출하량은 한국의 4배에 육박한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상징하던 화웨이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최강자(출하량 기준)로 부활했을 뿐 아니라, 중국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하며 '군기반장' 역할을 맡게 됐다. 2023년부터 화웨이는 자사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와 공동 개발한 7나노(10억 분의 1m) 공정 칩을 탑재하고 있다.

DJI와 이항(EHang)은 글로벌 공중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했고, 국가적 지원 속에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신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와 조선일보가 공개한 '한국과 중국 주력 산업의 최근 10년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3대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격차를 최대 8배까지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점유율은 한 국가의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첨단기술 확보의 3단계

중국의 '기술 돌파'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됐다. 첫째는 '연구실' 단계다. 국가 주도로 산학연을 총동원하는 신형거국체제를 가동해 각급 국영 · 민간 연구소에서 첨단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방식이다. 권력과 자원이 한곳에 집중된 중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꼽힌다.

기업들은 시제품 수준에 불과하거나 낮은
수율로 제조 원가가 높은 제품을 일단
출시해서 시장을 형성하고, 피드백을
받아 기술을 개선한다. 국가가 손해를
보전할 것이란 믿음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둘째는 ‘챔피언 육성’ 단계다. 국가가 특정 산업 분야를 이끌 ‘챔피언 기업’들을 선정해 첨단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앙정부는 전폭적인 산업 보조금과 규제 완화 카드를 쓰고, 지방정부들은 기술·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이런 안전망(網) 위에서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처럼 단순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과감하게 신제품을 내놓는다.

과거 자율주행 분야의 바이두, 음성인식 분야의 iFLYTEK(커다선페이), 전기차 분야의 BYD(비야디), 반도체 분야의 YMTC(창장메모리, 메모리 기업)와 SMIC(중신궤지, 파운드리 기업), 모바일결제의 텐센트 등이 챔피언 기업으로 ‘선발’돼 급성장했다. 2023년 중국 정부는 이차전지 분야의 챔피언 기업인 CATL 한곳에만 1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했다. 2023년 중국 첨단 기업의 연구 개발(R&D) 투자 규모는 2050억 80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한국 첨단 기업(510억 4000만 달러)의 4배 수준이다.

셋째는 ‘테스트’ 단계다. 기업들은 시제품 수준에 불과하거나 낮은 수율로 제조 원가가 높은 제품을 일단 출시해서 시장을 형성하고, 피드백을 받아 기술을 개선한다. 국가가 손해를 보전할 것이란 믿음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기업은 소비자의 반응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과 응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재출시된 제품은 시장을 확장하게 된다. 어느 순간 ‘돈 잡아먹던 기술’이 ‘돈 찍어내는 기술’이 되거나, 기술의 한계가 드러나 ‘빠른 포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국가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 중국 기업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외의 창의력을 발휘한다. 삼성전자는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비슷한 디자인의 폴더블 폰만 내놓고 있지만, 화웨이는 작년 9월 세계 최초로 2번 접히는 폴더블폰을 출시했다. 내구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어쨌든 화웨이는 기술 적용의 한계를 시험하고 관련 기술의 성숙도를 높일 기회를 얻었다. 소소한 사례지만, 중국 로보락이 최근 출시한 신형 로봇 청소기는 앞바퀴를 드는 기능을 세계 최초로 탑재했다. 지금까지 두꺼운 매트를 깔았거나 문턱이 높은 집은 로봇 청소기 사용에 애를 먹었는데, 새 제품은 앞바퀴를 들어 4cm 높이의 턱을 순조롭게 넘어간다. 이 회사는 몇 년 동안 물걸레를 냄새나지 않게 보관하는 기술 등 혁신을 이어가면서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게 됐다.

중국 오프라인에서 사실상 8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평가 받는 텐센트의

웨이신페이(위챗페이)는 ‘생체 결제 확대’ 라는 도전에 나섰다. 작년 9월 선전의 한 편의점에서 과자를 고른 다음 계산대로 가서 단말기 위 5cm 높이에 손바닥을 올리니 약간의 온기가 느껴지며 ‘결제 완료’ 음성이 들렸다. ‘팜페이’라 이름 붙은 이 시스템은 지문과 정맥 패턴 등을 인식해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과도한 서비스 단말기 설치 비용, 불확실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텐센트는 ‘실험’을 계속하며 데이터 수집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첨단 기술 확보 과정은 이처럼 ‘기묘한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다.

14억 인구가 기술을 검증하는 나라

중국이 ‘3단계’를 통해 빠르게 첨단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체제와 국민성이 있다. 연구소와 기업들이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마음껏 기술 테스트를 하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든 나라가 중국이다. 나라 전역이 ‘테스트베드(실험장)’고, 전 국민이 새 기술을 체험하고 검증한다. 중국인들이 협조적인 이유는 국가의 ‘기술 돌파’ 의지를 거스를 수 없는 탓도 있지만,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정보 유출이나 감시 등을 덜 민감하게 여기는 성향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특파원으로서 2년 넘게 베이징에 살아보니 로봇과 부대끼며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 베이징의 편의점 체인 벤리펑에서는 키가 2m인 로봇이 AI 카메라를 달고 매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재고를 확인한다. 좁은 통로를 자주 막아서기 때문에 ‘길막 로봇’으로 불린다. 작년에는 중국 산둥성의 명산인 태산에 쓰레기통 운반용 로봇 개가 투입됐다는 소식을 듣고 동영상을 찾아봤다. 중국 대표 로봇 회사

중국이 ‘3단계’를 통해 빠르게 첨단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체제와 국민성이 있다.
연구소와 기업들이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마음껏 기술 테스트를 하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인 ‘유니트리’에서 만든 4족(足) 짐꾼 로봇이 120kg짜리 짐을 싣고 가파른 경사로를 거미처럼 잘도 오르내렸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전기차는 기술 적용 면에서 확실하게 앞서 있다. 다른 나라의 완성차 기업이 굳이 적용하지 않는 기능도 ‘우선 다 넣고 보자’는 식이다. 작년 11월 방문한 중국 광저우 모터쇼에서는 BYD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U8’이 야외 행사장에 설치한 풀장에서 수중 운행을 했다. ‘수륙양용’인 이 차는 물에 들어간 후 배처럼 뜰 수 있고, 모터가 각기 달린 전기차 네 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헤엄쳐 갈 수 있다. 제자리에서 360도 도는 ‘탱크턴’, 바퀴 하나가 펑크 나도 AI가 나머지 바퀴로 달릴 수 있도록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무게 분산’ 기술도 탑재됐다. 가전 기업 샤오미는 작년 3월 첫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광저우 모터쇼에서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HAD)’라 불리는 자율주행 기능을 처음 선보였다. 중국의 차량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선 “샹거라 오쓰지(像個老司机·베테랑 운전수 같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자율주행의 선두주자 바이두는 구글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무인 택시 운영을 하고 있다. 작년 6월부터 우한시 전역에서 보조 운전자 없는 무인 택시를 약 500대 운행 중이다. 중국판 배달의 민족인 메이완은 지난 8월부터 만리장성에서 앱으로 주문 받는 방식으로 ‘드론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21년 일부 도시에서 드론 배달을 시작한 뒤 30여 곳에서 30만 건 넘게 배송했고, 대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중이다.

일관된 메시지가 만든 초대형 ‘인재 풀’

중국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이공계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기술 돌파’가 사명인 나라에서 개인의 영달은 기술 인재로 분류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 국가 계획에서 발표한 IT·로봇·전기차·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 리스트를 10여 년째 유지하며 국민들에게 기술 인재를 육성하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보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장쑤성에서 젊은 연구 인력들과 만난 자리에서 “10년 동안 칼을 가는 집념을 발휘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거대한 ‘기술 인재 풀’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베이징에서 초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로서 중국인들과 교류하다 보면 이들의

과학 교육 수준에 놀랄 때가 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자녀의 명문 중학교 ‘YL(優錄·특별 입학)’을 노리고 강도 높은 과학, 코딩 교육을 시킨다. 이를 위해 ‘초딩 이력서’도 준비하는데, 핵심은 수학·과학·코딩 실력 입증이다. 만 7살짜리 초등학생 아이의 이력서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 전자학회 로봇 자격증 2급’, ‘스크래치(코딩 프로그램)·아두이노(전자회로 기판) 활용 숙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피아노 콩쿠르 입상, 영어 시험 점수, 승마 자격증은 ‘기타 사항’이었다.

중국은 고교생들의 물리 교육도 강제하고 있다. 작년 6월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물리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의 34개 성(省)급 지역 중 23곳이 물리를 강조한 입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영·수 외에 물리·역사 중 한 과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하며, 물리는 등급이 아닌 원(原)점수로 평가된다. 물리 성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전공이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중국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 최상위권에는 전기공학·자동화학과, 전자정보학과, 기계설계제조학과, 컴퓨터공학과 등이 올라있다. 중국 교육부는 2018년부터 대학 학부 과정 2000곳에 AI 프로그램을 추가했고, 240여 곳의 대학에는 아예 AI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과를 신설했다. 올해 중국에서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박사 인력이 8만 명 이상 배출될 예정인데, 이는 미국의 2배 수준이다.

고소득 일자리는 이공계 인재에게 몰아준다. 베이징에서 만난 고소득 일자리 중계 플랫폼 창업자는 “상위 1%로 통하는 사모펀드·컨설팅 업계의 신규 일자리는 이공계 석사나 박사 학위 보유자만 얻을 수 있다”면서 “베이징대·칭화대 출신이라도 문과생은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중국 인구 14억 명 중 가장 우수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중국어 별명이
‘참견귀’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압박이
중국의 기술 자립을 앞당겼다고 보는
중국 사회의 시각이 담긴 셈이다.



한 이공계 인재들은 창업 시장에서도 ‘갑(甲)’이다. 중국 AI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스타트업 즈푸AI, 바이완AI, 문샷AI, 미니맥스의 창업자는 모두 칭화대 교수 아니면 졸업생이다.

중국의 위기는 ‘외란’ 아닌 ‘내우’에서 온다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에 맞서기 위해 중국은 최고지도자부터 초등학생까지 준비태세를 갖췄지만, 방어가 쉽지만은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대중국 제재의 범위를 범용 기술 등으로 넓히고,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이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이 직면할 가장 큰 위기는 ‘외란’이 아닌 ‘내우’ 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소비 부진, 지방정부 부채·과잉 생산 등 복합적인 이유로 경기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술 돌파를 위한 ‘대오’가 흐트러질 위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 세대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국가 운영 논리를 젊은 세대가 얼마나 더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지방정부 재정난으로 작년 연봉의 절반도 받지 못한 공무원과 국유기업 직원들에게 충성심만으로 거국 동원 체제를 지탱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중국 지도부는 기술 돌파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중국의 빠른 기술 개발과 도입의 이면에는 정부의 과도한 민간 기업 경영 개입과 개인정보 침해라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위해 기업들이 국가에 ‘복무’ 하는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시장 교란 현상도 속출하고 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미국 견제는 명분일 뿐, 실상은 ‘빅브라더 국가’ 건설이 최종 목표라는 말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2기에서 중국의 ‘방어 전략’이 통한다면 오히려 국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중국어 별명이 ‘쑤젠궈’라는 것이다. ‘쑤(川)’은 트럼프를 뜻하고, ‘젠궈(建國)’는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다. 트럼프의 압박이 중국의 기술 자립을 앞당겼다고 보는 중국 사회의 시각이 담긴 셈이다.